

# KT노동조합

KT TRADE UNION  
2006년 2월 27일(월)

■ 발행인 : 이재석 ■ 편집인 : 최광수 ■ 주소 : 463-71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 대표전화 : 031-727-4820(편집국 4836) ■ 팩스 : 031-727-4815 ■ 홈페이지 : www.kttu.or.kr ■ 편집디자인 : 디자인 여백(02-2279-9631)

# 2th

## 민주노총 위원장·사무총장에 조준호·김태일 당선

### 여성부위원장에 진영옥, 김지희, 최은민 일반부위원장에 이태영, 윤영규, 허영규

21일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열린 민주노총 제37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기호 2번 조준호·김태일 후보조가 위원장 사무총장에 당선됐다. <관련기사 2면>  
위원장 사무총장 후보조에 기호1번 이정훈·이해관 후보가 신상발언을 통해 선거불참을 밝힌 가운데 치러진 투표결과 기호2번 조준호·김태일 후보가 350표(51%)를 득표 324표(47%)를 득표한 기호 3번 김창근·이경수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조준호·김태일 당선자는 당선인사를 통해 “이번 선거기간동안 많은 조합원, 후보자들로부터 진정성을 보여달라는 말 많이 들었다”며 “짧은 기간이지만 민주노총을 바로세우고 진정성을 보여 드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노총의 초석이 되는, 10년이 되는 민주노총을 위해 올해 1년 헌신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임 조준호 위원장은 ▲전국곡식산업연맹 수석부위원장, 위원장 직무대행 ▲민주노총 조직강화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신임 김태일 사무총장은 ▲공공연맹 부위원장 ▲공공연맹 경제사회복지분과 위



원장 등을 역임했다. 여성할당 부위원장은 진영옥(409표-60%), 김지희(457표-67%), 최은민(386표-56%) 후보가 당선됐다. 이어 일반 부

위원장은 이태영(374표-55%), 윤영규(386표-56%), 허영규(419표-61%) 후보가 당선됐다. 한편, 당면한 열린우리당의 비정규 법안

강행처리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25일 전국 동시다발 집회와 28일 총파업을 결의했으며 이후 안전에 대해서는 정족수 미달로 자동산화했다.

#### ■ 10대공약

- 세상을 바꾸는 투쟁의 승리
-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 노사관계로드맵 분쇄와 노사관계민주화 방안 쟁취
- 무상의료 무상교육 쟁취
- 한미FTA협상, DDA협상 분쇄
- 과감한 조직혁신
- 비리근절과 규율위원회 권한 강화
- 직접민주주의와 대의제계 강화
- 재장구조 혁신인 미련과 지역본부 위상 재정립
- 민주노조운동 이념과 노선 정립을 위한 혁신위원회 설치
- 정파적 대결 근절과 통합지도력 구축
- 비정규투쟁위원회와 비정규 조직화 3대 방침
- 비정규 투쟁위원회 설치
- 비정규 조직화 3대 방침 정립
- 비정규 사업 역량 강화
- 복수노조 대응 종합계획과 산별노조 완성
- 복수노조 대응 종합계획 수립
- 산별체제 완성과 100만 민주노총 건설토대 마련
- 정책연구기능강화 및 100인 교육위원회 설치
- 여성위원회 강화
- 반세계화 반체국주의 국제연대 강화
- 5·31 지방자치선거 승리 민주노동당 강화
- 6·15공동선언이행과 반미반전투쟁, 자주통일 투쟁 강화
- 진보운동진영 총연합체 건설

## 지방본부대의원대회 28일 제주지방본부를 끝으로 마쳐

지난 16일 개최된 경남지방본부대의원대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강북, 강원, 대구, 부산 지방본부의 대의원대회가 22일까지 치뤄졌다.

지재식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스스로 변화하지 않고 혁신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이라며 “노동조합은 급변하는 시대에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조합이 바른 소리를 할때에도 사측은 다른 눈으로 바라본다”며 사측의 태도에 대해 비판하고 “권한과 책임을 따지기 보다는 옳은 길을 택할 줄 아는 현명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재식위원장은 지방본부대의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앞으로 지방본부대의원대회를 비롯해 조합원 및 조합간부들과 간담회자리를 여건이 허락하는 한 자주 갖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사관계로드맵과 관련해 “우리가 원치 않아도 변화를 겪어야 할 것”이라며 “예상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대비하는 자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승진 전환직 포기에 대해 불만이 있는 조합간부들도 있을 수 있으나 조합원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스스로 혁신하고 자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대의원과의 질의 및 답변

시간을 통해 VOC 및 클레임 문제, 고용불안,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파행 건 등의 질의를 받기도 했다. 이에 지재식위원장은 VOC 및 클레임 문제에 대해서는 끝없이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며 현장실태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노총의 현실에 대해 지적하면서 조합간부와 조합원들의 관심이 KT노동조합과 민주노총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본부 대의원들은 기타토의시간을 통해 KT노조에 심대한 위해를 끼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제명 등을 요구하고 결의했다.

## IT연맹 임원 선출

### 박홍식 위원장, 강희수 수석부위원장, 김영삼 사무처장 당선

지난 17일 IT연맹대의원대회를 통해 실시된 임원보궐선거에서 위원장에 박홍식 현 KT파워텔위원장, 수석부위원장에 강희수 현 KTF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에 김영삼 전 대외협력국장이 대의원 32명중 31명의 찬성으로 당선됐다. 또한 연맹의 교육사업강화, 세상을 바꾸는 투쟁과 로드맵, UNI가입, 비정규조직화, 남북교류사업비 등 각종 사업의 확대가 필요함에 따라 맹비인사를 결의했다. <관련기사2면>  
IT연맹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전반적으로 민주노총의 정기대의원대회의 폭력무산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조합원의 대표인 대의원의 참석을 가로막은 세력에 대해 분노했다.

대회사에 나선 배효주 IT연맹 직무대행은 연맹의 출범정신인 “분열을 넘어 단결과 통합을 실천”하기 위해 민주노조 분열세력과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연맹의 최우선 과제로 IT노동자 조직화”를 꼽고 조직화에 공격적으로 나설 것을 밝혔다. 이어 “IT노동자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꾀하기 위해 경영 참여를 통해 기업의 올바른 성장과 윤리경영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서비스연맹 김형근 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그동안 우리 노동운동이 반대운동을 펼쳐왔다”며 “그것이 선명해 보일지는 몰라도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은 생산과 창조를 의미

한다”며 “기존의 선명성 경쟁과 안티운동을 벗어나 IT연맹이 앞장서 새로운 창조하자”고 역설했다.

끝으로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민주노총 3차 대의원대회 IT연맹 파견 대의원의 대외장 출입이 저지당하며 일부 폭력세력과 의장의 교묘한 지연작전 등으로 무산됐으며 민주노총을 위기에서 사수하고 일천만 노동자의 희망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노력하자고 결의했고 이어 ▲한미FTA 통신서비스 시장 개방 저지 ▲세상을 바꾸는 투쟁에 적극 참여 ▲노동약법 철폐투쟁에 적극 나설 것 ▲경영참가 투쟁 전개 ▲비정규직 조직화 ▲위기의 민주노총을 새롭게 건설할 것 등을 결의했다.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해요

중앙상징, 성남시 일대 소외된 이웃에 쌀 전달



중앙상징은 20일 KT본사가 위치한 성남시 일대의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에 20Kg 쌀 150계를 전달했다.

지재식위원장은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거동이 불편한 소외된 이웃이 많다”며 “보이지 않지만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조합은 앞으로도 차별받는 사람,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노동조합이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부산지방본부 조합간부 봉사활동

독거노인 15세대에 연탄, 쌀 전달



지난 1월 17일 부산지방본부 조합간부들은 부산 사하구 감천2동(연탄은행)에서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15세대를 방문해서 연탄80장과 쌀10석 전달하고 마음을 나누었다.

조합간부로서 혁신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와 조합원에게 더욱더 다가서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휴게실이 좋아졌어요”

본사지방본부 식당, 휴게실 등 복지시설 개선

본사지방본부가 본사 조합원들의 편의를 위해 식당 및 휴게실 개선에 나섰다.

본사지방본부는 9대 출범과 함께 한달여 기간동안 구내식당의 청결상태 및 주변환경을 바꾸고 식단을 개선했다.

또한 여직원휴게실을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실시해 새롭게 재탄생시켰다. 바닥 전면교체, 화장대 및 침대 설치, 구내전화 신설 등 각종 편의시설을 구비하고, 여성잡지를 구독해 교양 및 문화생활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유실을 신설해 여성조합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2006년도 유아교육보조비 신청하세요 !!

### 1. 2006년도 신청 대상자는 ?

- 대상사원  
취학직전 (3월1일 기준 만5세 도달)자녀를 둔 사원 (≡ 2000.3.1~2001.2.28사이 출생자녀로 2007년 초등학교 입학 예정자)
- 자녀기준  
- 사원의 호적에 등재된 자녀  
- 이혼한 여직원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부양자녀

### 2. 지급기준

- 대상자녀의 수 : 제한 없음

- 지급금액 : 대상자녀 1인당 월 10만원  
- 보수지급일에 해당 분기별(6.9.12.3월) 정액지급
- 지급기간 : 최장기간 1년  
- 2006년도 신청자 : 2006년 3월부터 2007년 2월까지

- 지급제외  
- 대상자녀가 KT직장보육시설 수혜를 받는 경우  
- 부부사원의 경우 1인당 지급

### 3. 신청방법

- 신청기한 : 2006년 3.1 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전산입력 : insa시스템 복지/유아교육비 에 신청 입력
- 신청서류를 소속기관에 제출

#### ○ 신청서류

- ① 유아교육보조비 지급신청서(insa시스템 복지/유아교육비 에서 다운받음)
- ② 교육(보육)시설에 납입한 영수증 또는 재원증명서  
\* 교육(보육)시설  
-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보육시설  
- 유아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유치원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육에관한법률에 의거 설립된 학원, 교습소  
- 기타 교육시설

interview 조준호 민주노총 신임 위원장

## “단결과 혁신으로 민중과 함께 세상을 바꾸겠다”

국회 원노위 법안심사소위의 비정규직 처리 예상. 특히 사유제한 등을 두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사유제한 부분을 양보할 것인가, 아니면 관철 투쟁할 것인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비정규직 사유제한 철폐는 비정규직을 마음대로 쓰겠다는 것이다. 관련 법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사유제한 철폐를 하겠다는 것은 정규직화와 정반대 문제이다. 이견 협상의 여지가 없다.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결코 양보할 부분은 없다.

사회적 대안 수립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 복귀 등에 대한 견해는?

대화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그들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민주노총이 물러서서 자리는 거부한다. 내용을 갖출 것인가의 문제다. 현안문제들이 있다. 비정규직 4사 문제 등이 존재한다. 정부와 여당이 비정규직 법안을 민주노총과 민노당을 배제한 채 강행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대화를 할 수 있는가.

새로운 민주노조 운동을 말씀했다. 정파적 분열주의 문제나 지속적인 네거티브 문제의 해결 방안은?

어떤 조직이건 경쟁적인 정파가 존재한다. 있을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하고 순기능적인 기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 토론하여 최대한 공약수를 가질 수 있



도록 전향시킬 생각이야.

노사정을 포함해 대화의 장으로 가려면 헌 정부와 정치권에서 어떤 입장이 나와야 하는가?

정부도 알고 있다. 비정규직제를 갖고 비정규 4사들이 단식농성 중임을, 파견노동자와 관련하여 정규직화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을 하지 않고 대화만 하자는 것에 대해 진정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납득할 수 없다.

노사정 대표자 등이 실제로 열리고 있다. 참여 전제조건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하나가 참여해달라는 것인데 정부는 오히려 확대법안을 내놓고 참여해달라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이중적이다. 구체

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한다든가하는 방침을 내놓으면 참가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현재 정부와 여당 등의 태도, 즉 노사정 참여 요청은 지도부와 현장을 분리시키는 내용일 수밖에 없다.

한국노총과의 연대 문제에 대한 견해는?

사안에 따라서 함께할 수 있으면 함께하겠다. 함께 투쟁한다는 것 (자체가) 통합의 문제로 (즉각)비약할 문제는 아니다. 다만, 공동투쟁할 부분이 있으면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겠다.

공세적인 사업이란 무엇인가?

시한부 집행부이긴 하다. 저화들이 공세적

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환경이 그렇다는 것이다. 비정규, 노사관계로드맵, 한미FTA 문제에 대해 수세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비정규입법만 해도 바로 파업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될 문제다. 총파업을 철저히 준비해 대응할 것이다.

내부적인 개혁방안은?

공약에 있듯이 직선제가 있다. 현실과 지향의 문제는 다르다. 올 일년을 철저히 준비하겠다. 바로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즉각)할 수 있는 것인지 점검이 필요하다. 직선제가 가능한지 점검하고 준비할 것이다.

최근에 전 집행부나 민주노총 내부에서 활동한 분들조차 지나친 강경함이나 투쟁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있었다. 그 수위가 높았다. 심한 비난과 비판이 있었다.

‘(민주노총이) 강경한 투쟁을 한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강경한 투쟁을 할 조건이 없다면 안 할 것이다. 파업을 안 할 조건이라면 안 하겠다. 비판의 또 다른 내용적 측면이 있을 것이다. 80만 조합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것들을 정화해내는 규율위원회를 설립해 (근본적으로)비리를 발붙일 수 없도록 주력하겠다.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은 민주노총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이며 이는 쇄신의 계기가 될 것이다.

interview 박흥식 IT노조 신임위원장

## “비정규직 조직화-KT그룹 공동임단협에 노력할 것”



어려운 시기에 조직의 수장을 맡는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출마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IT연맹 출범 정신 중에 양대노총을 뛰어넘어 한국노동자 단결의 구심이 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노총 경험도 있는 제가 민주노총에 와서 연맹 위원장을 맡는 것은 이런 정신에 부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맹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입니까?

우선 시급한 것은 1년의 시간도 남지 않은 복수노조나 전일자 임금 금지 등 노사관계의 큰 변화에 대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연맹에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수립하고 단위노조와 함께 헤쳐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직확대 사업도 시급한 과제중의 하나입니다. 가맹노조가 아직 7개 정도이기 때문에 연맹으로서의 내용과 틀을 제대로 갖추기가 어려운 형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올해 안에 10개이상의 노동조합을 가입시켜 연맹다운 내용과 형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IT연맹 설립이 민주노총 내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과 해결 방

안이 있으신지요.

IT연맹을 둘러싼 논란은 노동계가 변화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저항은 동시에 변화를 추구하려는 IT연맹에 대한 정치적 공세라고 봅니다. 노동계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평소 소신입니다. 그 변화는 변질이 아니라 노동자 정신에 입각하여 변화된 환경을 주체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민주노조운동은 이제 반대투쟁에서 한발 더 나아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투쟁도 하지만 대화와 교섭도 해야 합니다.

IT연맹의 수장으로서 임기 내에 꼭 완성하고 싶은 사업은 무엇입니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비정규직 조직 강화입니다. IT 산업노동자들은 갑을병정단계 심지어 무,기 단계등 6~7단계 단계 하청에 내몰려 있습니다. 당연히 저임금에 시달리고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IT연맹이 IT산업을 대표하는 조직이 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KT그룹 공동임단협을 이뤄내겠습니다. IT연맹 주력 노동조합들이 KT그룹 노동조합인데, 그동안 개별로 산개되어 임단협을 진행했습니. 단위노조 임단협 기획자들이 모여 공동임단협의 수준과 방식을 찾아보겠지만, 하버튼 임기내에 KT그룹 전체 노동자들이 함께하는 공동 임단협의 기틀을 마련해 볼 생각입니다.

## 조합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그거 어떻게 알았어?” “거기 가면 다 있어!” “거기가 어디인데?”

바로 노동조합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1

“새로운 복지, 뉴스가 궁금해”  
- 새로운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 조합소식, 일일소식지, 사진자료, 동영상자료, K노보

2

“우리끼리 정보를 나누고 싶는데”  
- 열린게시판, 조합원게시판  
- 지방본부별 커뮤니티, 조합원경조사

3

“아휴 속상해! 내 말 좀 들어줄 데 없나?”  
- 고충처리, 토론게시판, 설문조사

4

“주말에 무엇을 하며 보낼까?”  
- 문화광장, 유머광장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가입하면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www.kttu.or.kr

‘생생한 이야기’ ‘독특’ 튀는 아이디어

노동조합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1

지부에서 일어나는 함께 나누고 싶은 일을 제보하여 주십시오.  
지부에서 주최한 좋은 행사, 자랑할 만한 일부터 안 좋은 일, 잘못된 일, 슬픈 일까지

조합원 여러분과 관련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제보 주십시오.  
제보는 쪽지나 메일 (편집국장 서정녀), 홈페이지 게시판 어떤 방식으로든지 연락을 주시면 바로 찾아가겠습니다.

2

조합원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언제나 현장에서 땀흘려 일하시는 조합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일어났던 재미있었던 일, 자랑

민주노총에 바란다

## 새것을 구하기 위한 결단과 실천이 필요하다

희망을 주지 못하는 노동운동.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2006년의 화두가 되어 버렸다.

국민들은 그만두더라도 민주노총 조합원들마저 노동의 절망을 얘기하는 현실 앞에 노동운동은 다시 새로운 진로를 모색해야 한다.

그 시작은 낡은 것은 과감히 버리고 새 것을 구하기 위한 결단과 실천이다.

분파주의자들을 내부투쟁을 통해서 과감히 몰아내야 한다. 조합이기주의를 접고 연대의 기풍을 살려내야 한다. 관료적이면서 도덕적으로도 불감증에 빠진 노동조합과 노조간부들은 뼈를 깎는 자기반성과 혁신을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다면 퇴출되어야 한다.

특히 배타적인 정파주의는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면서 조직 발전에 상승효과를 가져오는 정파운동이 되어야 한다.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식의 교조적인 입장을 가진 정파는 완전히 몰아내야 한다.

“변화하는 조직, 혁신하는 간부”로 환골탈태하는 것만이 현장 노동자들이 느낀 실망과 배신에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방법일 것이다.

노동운동이 합법화되지 못한 시절, 구사대 폭력에 맞서 싸워야 했고, 수배와 구속으로 인신의 자유가 제한당할 때 노동운동

을 지킨 것은 선우배간의 의리와 신뢰 그리고 동지애였다. 노동운동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서 노조간부들의 개인주의도 커져 왔고, 소수이긴 하지만 노조활동을 개인적 욕심을 위해 이용하기도 했다. 노동운동의 현장성은 약해지고 말았으며, 개인과 특정정파의 이해를 관철시키려는 목소리만 커져 오지는 않았느냐는 생각이 다. 노조간부직에 연연하지 않고 현장 노동자와 함께 땀 흘리는 활동가, 비판을 동시에 받아들이고 자신혁신에 게으르지 않는 간부로 다시 거듭나야 한다.

자본의 간악한 탄압은 계속되고 있으며 그 방법도 교묘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운동 진영의 투쟁전술도 정교해지고 타양해질 필요가 있다. 비타협 투쟁만을 요구하는 전투주의적 사고는 노동운동의 고립만을 자초할 뿐이다.

동시에 그간 노동운동의 성과로 넓혀진 합법공간인 사회적 교섭과 사회제도 개혁 투쟁 역시 전체노동자의 사회적 지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용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전체노동자의 이익과 비정규직 등 사회적 차별을 없애기 위한 또 하나의 투쟁 공간인 것이다. 이는 노동운동의 자신감의 문제이다. 우리 스스로 비타협적 투쟁만 고집한다면 사회적 고립을 면할 수 없다.

같은 편은 통 크게 뭉쳐야 한다

민주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다시 복원하고, 조직의 질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면 조합원의 신뢰를 얻는 시작일 될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노동운동의 새로운 전망을 열기 위해 조합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산별노조로 뭉쳐 나가자.

진정성을 가지고 분열을 넘어 통합과 단결을 위해 나아가자면 노

“배타적인 정파주의는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한다”

원고제보

쪽지 : iman-편집국장(서정녀)

e-mail : jinseo@ktoo.kr

홈페이지 게시판

# 외국자본의 공세에 KT는 자유로운가

## 우수지배구조기업 KT&G의 위기... 다음 표적은 KT

외국자본의 공세가 거세다. 지난해 소 버린과 경영권타툼이 있었던 SK에 이어 올해 칼 아이칸과 KT&G가 격돌하고 있다. 칼 아이칸은 집중투표를 통한 이사 선임을 위해 외국인 주주들의 결집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나 KT&G의 1대 주주는 프랭클린뮤추얼 어드바이저라는 회사로 이들이 결집할 경우 사실상 경영권은 외국인들에게 넘어간다.

한국은 경제위기 이후 외국자본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했다. 한국 자본시장에서 외국자본의 비중은 95년 11.9%에서 2005년 40.1%까지 확대됐다. 2005년 말 현재 상위 10대 기업 중 외국인 자본이 40%를 넘어서는 기업의 수가 7개에 달하고 있으며 상장기업 전반에 걸쳐 외국인의 비중

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참조>

직접투자가 아닌 헤지펀드나 사모펀드 등 외국인 간접투자는 수개월 이하의 단기간 투자나 길어야 3~5년 정도의 중단기 투자자 목적이다. 이들은 투자회수기간이 길고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장기투자보다는 구조조정, 고배당 등을 통한 투자기간 내의 이익실현을 선호하며 인력 및 사업구조조정은 현금유출을 감소시켜 높은 배당을 가능케 한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 등 대량자본을 보유한 단기투자자의 자본을 증가는 경영진에게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브릿지증권, 만도기계, 오비맥주 등의

외국인 대주주는 유상감자를 통해 자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당 금액의 투자자금을 회수해갔다. 또한 배당을 실시한 상장기업의 평균 주당배당금은 99년 597원에서 2003년에는 1,016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KT&G는 지배구조우수기업으로 알려져져 왔다. 그런데 지금 그 지배구조우수가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칼 아이칸이 KT&G의 경영권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를 두가지로 분석한다. 하나는 취약한 지분구조이며 다른 하나는 한국내 담배사업의 독점적 지위 때문에 가치가 크다는 것이다.

KT도 이와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KT&G와 마찬가지로 KT는 민영화 이후 지배구조우수기업으로 이름을 알려왔으며 유선통신산업의 말쑥으로 역할을 해왔다. 회사관계자는 “KT의 자본한도가 15%로 제한되어 있고 특히 외국인은 자본5%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법적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경영권위협으로부터 KT는 안정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당장의 임기응변은 될지 몰라도 장기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 전세계적으로 자본의 흐름에 국경이 사라지고 WTO, DDA, FTA등을 통해 조국적 자본들은 내국인의 지위를 획득해가고 있다. 자원은 법은 조국적 자본의 힘에 의해 개정될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더욱 불안한 것은 주가 부양을 위해서 KT경영진이 끊임없이 외국인지분 제한을 폐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유지분은 46%지만 실질 의결주식은 70%를 넘게 보유한 외국인들에게 KT를 통째로 넘기겠다는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더 이상 법의 테두리에서 안주해서는 안된다. 이미 많은 외국 유명 통신사업자들이 초국적 자본에 의해 무너져 내렸다. KT도 이제 준비해야 할 때이다. 노동조합이 요구하고 있는 사외이사는 바로 이러한 외국자본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원타자가 될 것이다.

주요국내기업의 외국인 지분율									
기업/연도	97.11	98.12	99.12	00.12	01.12	02.12	03.12	04.12	05.12
삼성전자	24.2	49.3	45.3	53.7	60.0	54.8	60.1	54.1	53.8
현대자동차	23.6	15.1	15.4	27.8	47.4	48.6	54.8	55.8	48.5
한국전력	10.6	19.9	22.4	26.1	26.5	25.1	29.0	30.5	30.0
포스코	20.8	38.1	43	48.9	62.0	61.5	66.5	69.3	67.8
하이닉스	7.2	4.5	10.3	35.6	7.7	0.8	1.0	5.5	18.8
LG필립스LCD	-	-	-	-	-	-	-	52.1	54.0
SK텔레콤	26.0	33.6	31.6	33.7	32.3	41.3	48.6	48.4	49.0
LG전자	-	-	-	-	-	23.8	33.6	39.9	41.2
KT	-	0.03	18.7	19.4	37.2	41.6	45.5	49.0	46.3
기아자동차	-	-	5.2	8.2	11.6	15.4	31.3	36.5	28.3

※ 자료: 증권거래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 한미 FTA 경제 식민지의 가속화

## 미국의 FTA목표는 서비스 개방이다

농산물개방과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 등으로 한미FTA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영화인들은 스크린쿼터 축소가 단지 상영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영화유통의 문제라고 강조한다. 할리우드 영화로 대체되는 미국의 영화산업은 이미 거대자본이 형성돼 있어 스크린쿼터를 폐지할 경우 일거에 영화산업이 미국자본에 의해 장악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한국의 농민들과 영화인들은 공동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 FTA는 무엇인가?

2차 대전 직후 세계전쟁의 원인으로 지적된 보호무역주의에 반대, 회원국간의 최혜국대우를 규정한 GATT체제에서의 일종의 예외조항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개도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선진자본주의국 일부는 미국주도의 GATT체제를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제1안 1947년 GATT 조약문 24조에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WTO협정에서 이른바 '무역관련'이란 개념을 통해 그 규율대상이 상품에 대한 관세에 그치지 않고 경제활동 전 영역을 포괄하게 됐다. 즉 FTA는 자유무역협정이라고보다는 포괄적 경제통합협정이라고 보는 것이 현실에 부합된다.

### FTA는 국가보다 자본의 지배력이 더 커져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의 공통적인 특징들은 이렇다.

첫째, 시장접근상의 차별금지 문제로 일반적으로 내국민대우와 최혜국 대우로 표현된다. 이는 특히 월등히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가진 국가 예컨대 미국이나 일본과의 협상시 필히 역차별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즉 해당국가의 조국적 기업이나 투자부문에서 조국적 금융자본의 최대이익과 무한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작용한다.

둘째, 거의 예외없이 해당기업에 대한 일체의 이행의무부과를 금지한다. 즉 기술이전, 고용창출, 고용승계, 환경보호 등 국가가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있었던 모든 의무로부터 기업내지 투자자는 면제된다. 이에 따라 국가 대 투자자의 관계에서 국가의 권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셋째, 무역 및 투자분쟁의 해결 절차에 관련해 거의 모든 신자유주의적 협정들은 제3의 기관이나 심급, 예컨대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CSISD)에 제소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함으로써 체약국 쌍방 국가의 관할권을 무력화시킨다. 이로써 투자자 내지 기업은 체약국 정부를 직접 제소할 수 있어 사실상 국가와 동급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특히 여기서 주의할 점은 투자자는 국가를 제소할 수 있어도 국가가 투자자를 제소하기 위해서는 해당국 정부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넷째, 대부분의 협정들은 잠재적 또는 명시적으로 반노동조합적 경향을 가진다. 특히 신자유주의가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는 규제완화, 유연화라는 것이 내용적으로 노동조합의 무력화를 겨냥하고 있고 이는 노동시장의 불안정 곧 비정규직의 비약적 증가와도 맞물려 있다.

### 한미FTA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한미FTA가 지난 2월 3일 워싱턴에서 공식 개시됐다. 양국 협상단은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협상을 벌여 2007년 3월 협상을 타결할 방침이다. 한미FTA는 앞으로 10년간 단계적으로 양국 간 교육품목의 90%이상을 무관세로 개방하는 것이 목표다.

협상대상은 공산품 농산물 서비스 투자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있고 1단계가 넘는 교역품목별로 관세양허안을 협상해야 한다.

한미FTA에 대해 냉철하게 바라봐야 한다. 덮어놓고 한미FTA가 국익에 보탬



이 안된다거나 구체적인 검증도 없이 숫자에 불과한 추정치로는 그 결과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 KT가 속한 통신서비스분야는 어떤 한가?

한미FTA 협상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서비스부분이라고 한다. 전세계적으로 미국은 서비스분야의 강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이 제조업 기반 경제라면 미국은 서비스 경제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 노리는 대표적인 시장이 농산물과 더불어 국내서비스분야이다. 미국은 도하개발아젠다(DDA) 다자간 협상이 농산물과 서비스분야 때문에 교착상태에 빠지자 양자간 FTA라는 각계각과로 통신정책의 방향을 틀고 있다.

우리나라의 금융·통신·교육·의료·법률·회계·영화·방송 등 광범위한 서

비스 분야는 시장개방에 따라 대규모 구조조정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 KT가 속한 통신서비스분야는 어떤 한가?

KT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외국인 자본이 49%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조항하나로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도하개발의제나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 등이 체결될 경우 최혜국대우 또는 내국민대우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49% 제한조항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더군다나 KT는 25%에 이르는 자사주가 있다. 현재의 외국인 자본 46%만으로도 언제든지 70%가 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KT의 현실이다.

지부/분회장 선출결과 및 대의원 당선자 명단				
<b>지부장 보궐선거 및 분회장 선출 결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강동NSC 이봉규</li> <li>영동 박준순 이희선</li> <li>수서 신성기</li> <li>서초 나경택</li> <li>양재 김성택</li> <li>과천 김중윤</li> <li>신사 남경우</li> <li>반포 배운서</li> <li>서울강남NSC 이종철</li> <li>수원 오은호 윤일성</li> <li>남수원 신양호</li> <li>사수원 정성환</li> <li>발안 유기수</li> <li>동수원 고구봉 조영주</li> <li>용인 조성영</li> <li>수지 남재경</li> <li>평택 정우필</li> <li>송탄 최해철</li> <li>안성 유세식</li> <li>오산 정상환</li> <li>강남분회 최광수</li> <li>강남강남NSC 이현익</li> <li>경남남부NSC 박종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승포분회) 손현배 김옥경</li> <li>동아신 정병순</li> <li>동명 박진상</li> <li>가재 정길용</li> <li>고성 최재상</li> <li>진주 정동만</li> <li>사천 조수동</li> <li>삼천포 정해준</li> <li>남해 김지수</li> <li>하동 이경복</li> <li>산청 김광희</li> <li>함양 김근식</li> <li>동진주 김주경</li> <li>거창 김재경</li> <li>함천 박지용</li> <li>부산분부 노충열</li> <li>동래명 박상인</li> <li>서부산양 이광신 손희 등</li> <li>동부산양 권상기</li> <li>울산명 임용식</li> <li>경남명 김경도 정영환</li> <li>경남진주명 김영호</li> <li>부산명 김상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무 명국연</li> <li>목포 박종광 강상수</li> <li>해남 이남식</li> <li>간진 임광택</li> <li>무안 김갑춘</li> <li>영양 김재천</li> <li>민도 김광주</li> <li>진흥 김관인</li> <li>진도 김진성</li> <li>하양 정광우</li> <li>순천 김진욱</li> <li>(북순천분회) 정영주</li> <li>(동순천분회) 신명주</li> <li>고흥 장태훈</li> <li>야수 박태순</li> <li>광양 신형규</li> <li>여천 권민중</li> <li>광주NSC 김동욱 김형오</li> <li>김기창</li> <li>목포NSC 박철오</li> <li>울산명 김철근</li> <li>전남강남NSC 정재식</li> </ul>	
<b>전북지방법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읍지부 최왕주</li> </ul>			
<b>강남지방법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당지부 장호원분회 강광명</li> </ul>			
<b>서부지방법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천지부 백령분회 심홍신</li> </ul>			
<b>대구지방법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포항지부 울릉분회 김지현</li> <li>안동지부 청송분회 황병환</li> <li>안동지부 영양분회 권오용</li> </ul>			
<b>본산지방법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도권객센터지부 강원고객센터분회 노병덕</li> </ul>			
<b>전남지방법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광주지부 곡성분회 하인성</li> <li>서광주지부 담양분회 정성훈</li> <li>광산지부 함평분회 윤영태</li> <li>순천지부 구례분회 이원규</li> <li>순천지부 보성분회 (27일 선거예정)</li> </ul>			
<b>전북지방법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주지부 임실분회 김성광</li> <li>전주지부 순창분회 한오현</li> <li>북전주지부 진안회 진갑성</li> <li>북전주지부 장수분회 이사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수지부 하준철</li> <li>주안지부 이용태</li> <li>송도지부 전용철</li> <li>송의지부 이현오</li> <li>연수지부 이두서</li> <li>황동지부 백병현</li> <li>서안천지부 김윤철</li> <li>안천공황지부 박인규</li> <li>속남지부 이광재</li> <li>김포지부 이한웅</li> <li>강화지부 한병덕</li> <li>부창지부 김중기</li> <li>동부창지부 박성기</li> <li>중동지부 김동영</li> <li>북부창지부 강태연</li> <li>부평지부 조일환</li> <li>계양지부 김오철</li> <li>안양지부 정지민</li> <li>서안양지부 홍순배</li> <li>곡포지부 권용철</li> <li>호계지부 김홍만</li> <li>안산지부 임종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대구 하인택 방정룡</li> <li>경산 김해관</li> <li>영천 박병도</li> <li>하양 황성운</li> <li>수성 이영지 이규동</li> <li>상동 이준근</li> <li>청도 박영욱</li> <li>포항 박인숙 백병기</li> <li>북포항 정병화</li> <li>영 덕 최진환</li> <li>울 진 진중호</li> <li>경 주 김정훈</li> <li>구 미 강영구 이근순</li> <li>김 천 박명서</li> <li>상 주 박종범</li> <li>안 동 김시동</li> <li>서안동 이찬원</li> <li>의 성 권해만</li> <li>영 주 김창진</li> <li>봉 화 심재은</li> <li>문 경 김성욱</li> <li>예 천 윤원상</li> <li>대구명간실국 강진구</li> <li>대구분부 박현중</li> <li>대구NSC 정주현 이사회 박추서</li> <li>동대구NSC 석경우</li> <li>포항NSC 주경호</li> <li>안동NSC 이주일</li> <li>안동NSC구미 박병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남분부 안성희</li> <li>충남강남실국 이상철</li> <li>대전명 최장택 사정원 고재필</li> <li>충남영양공구 이호연 이근주</li> </ul>
<b>충남지방법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전지부 계룡분회 박승용</li> <li>천안지부 성환분회 강원규</li> </ul>			
<b>충북지방법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청주지부 보은분회 임현용</li> <li>청주지부 증평분회 오두수</li> <li>청주지부 괴산분회 김홍수</li> <li>충주지부 단양분회 이관호</li> </ul>			
<b>충북지방법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남안산지부 유광림</li> <li>서희지부 신갑진</li> <li>시흥지부 유재대</li> <li>강서지부 김희태</li> <li>가양지부 김일오</li> <li>김포공황지부 이상오</li> <li>목동지부 김혁중</li> <li>영동포지부 임형식</li> <li>개봉지부 김희원</li> <li>경기서부명운공국 최남권</li> <li>서울경서명운공국 강진국</li> <li>서울남부명운공국 문길용 김영근</li> <li>인천명운공국 김영주 김상수</li> <li>인천서부명운공국 강태영</li> <li>서부명간실국 문경호</li> <li>서부분부 이병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안동 이찬원</li> <li>의 성 권해만</li> <li>영 주 김창진</li> <li>봉 화 심재은</li> <li>문 경 김성욱</li> <li>예 천 윤원상</li> <li>대구명간실국 강진구</li> <li>대구분부 박현중</li> <li>대구NSC 정주현 이사회 박추서</li> <li>동대구NSC 석경우</li> <li>포항NSC 주경호</li> <li>안동NSC 이주일</li> <li>안동NSC구미 박병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남분부 안성희</li> <li>충남강남실국 이상철</li> <li>대전명 최장택 사정원 고재필</li> <li>충남영양공구 이호연 이근주</li> </ul>	
<b>충남지방법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남안산지부 유광림</li> <li>서희지부 신갑진</li> <li>시흥지부 유재대</li> <li>강서지부 김희태</li> <li>가양지부 김일오</li> <li>김포공황지부 이상오</li> <li>목동지부 김혁중</li> <li>영동포지부 임형식</li> <li>개봉지부 김희원</li> <li>경기서부명운공국 최남권</li> <li>서울경서명운공국 강진국</li> <li>서울남부명운공국 문길용 김영근</li> <li>인천명운공국 김영주 김상수</li> <li>인천서부명운공국 강태영</li> <li>서부명간실국 문경호</li> <li>서부분부 이병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안동 이찬원</li> <li>의 성 권해만</li> <li>영 주 김창진</li> <li>봉 화 심재은</li> <li>문 경 김성욱</li> <li>예 천 윤원상</li> <li>대구명간실국 강진구</li> <li>대구분부 박현중</li> <li>대구NSC 정주현 이사회 박추서</li> <li>동대구NSC 석경우</li> <li>포항NSC 주경호</li> <li>안동NSC 이주일</li> <li>안동NSC구미 박병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남분부 안성희</li> <li>충남강남실국 이상철</li> <li>대전명 최장택 사정원 고재필</li> <li>충남영양공구 이호연 이근주</li> </ul>	
<b>충남지방법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남안산지부 유광림</li> <li>서희지부 신갑진</li> <li>시흥지부 유재대</li> <li>강서지부 김희태</li> <li>가양지부 김일오</li> <li>김포공황지부 이상오</li> <li>목동지부 김혁중</li> <li>영동포지부 임형식</li> <li>개봉지부 김희원</li> <li>경기서부명운공국 최남권</li> <li>서울경서명운공국 강진국</li> <li>서울남부명운공국 문길용 김영근</li> <li>인천명운공국 김영주 김상수</li> <li>인천서부명운공국 강태영</li> <li>서부명간실국 문경호</li> <li>서부분부 이병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안동 이찬원</li> <li>의 성 권해만</li> <li>영 주 김창진</li> <li>봉 화 심재은</li> <li>문 경 김성욱</li> <li>예 천 윤원상</li> <li>대구명간실국 강진구</li> <li>대구분부 박현중</li> <li>대구NSC 정주현 이사회 박추서</li> <li>동대구NSC 석경우</li> <li>포항NSC 주경호</li> <li>안동NSC 이주일</li> <li>안동NSC구미 박병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남분부 안성희</li> <li>충남강남실국 이상철</li> <li>대전명 최장택 사정원 고재필</li> <li>충남영양공구 이호연 이근주</li> </ul>	
<b>충남지방법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남안산지부 유광림</li> <li>서희지부 신갑진</li> <li>시흥지부 유재대</li> <li>강서지부 김희태</li> <li>가양지부 김일오</li> <li>김포공황지부 이상오</li> <li>목동지부 김혁중</li> <li>영동포지부 임형식</li> <li>개봉지부 김희원</li> <li>경기서부명운공국 최남권</li> <li>서울경서명운공국 강진국</li> <li>서울남부명운공국 문길용 김영근</li> <li>인천명운공국 김영주 김상수</li> <li>인천서부명운공국 강태영</li> <li>서부명간실국 문경호</li> <li>서부분부 이병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안동 이찬원</li> <li>의 성 권해만</li> <li>영 주 김창진</li> <li>봉 화 심재은</li> <li>문 경 김성욱</li> <li>예 천 윤원상</li> <li>대구명간실국 강진구</li> <li>대구분부 박현중</li> <li>대구NSC 정주현 이사회 박추서</li> <li>동대구NSC 석경우</li> <li>포항NSC 주경호</li> <li>안동NSC 이주일</li> <li>안동NSC구미 박병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남분부 안성희</li> <li>충남강남실국 이상철</li> <li>대전명 최장택 사정원 고재필</li> <li>충남영양공구 이호연 이근주</li> </ul>	
<b>충남지방법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남안산지부 유광림</li> <li>서희지부 신갑진</li> <li>시흥지부 유재대</li> <li>강서지부 김희태</li> <li>가양지부 김일오</li> <li>김포공황지부 이상오</li> <li>목동지부 김혁중</li> <li>영동포지부 임형식</li> <li>개봉지부 김희원</li> <li>경기서부명운공국 최남권</li> <li>서울경서명운공국 강진국</li> <li>서울남부명운공국 문길용 김영근</li> <li>인천명운공국 김영주 김상수</li> <li>인천서부명운공국 강태영</li> <li>서부명간실국 문경호</li> <li>서부분부 이병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안동 이찬원</li> <li>의 성 권해만</li> <li>영 주 김창진</li> <li>봉 화 심재은</li> <li>문 경 김성욱</li> <li>예 천 윤원상</li> <li>대구명간실국 강진구</li> <li>대구분부 박현중</li> <li>대구NSC 정주현 이사회 박추서</li> <li>동대구NSC 석경우</li> <li>포항NSC 주경호</li> <li>안동NSC 이주일</li> <li>안동NSC구미 박병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남분부 안성희</li> <li>충남강남실국 이상철</li> <li>대전명 최장택 사정원 고재필</li> <li>충남영양공구 이호연 이근주</li> </ul>	
<b>충남지방법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남안산지부 유광림</li> <li>서희지부 신갑진</li> <li>시흥지부 유재대</li> <li>강서지부 김희태</li> <li>가양지부 김일오</li> <li>김포공황지부 이상오</li> <li>목동지부 김혁중</li> <li>영동포지부 임형식</li> <li>개봉지부 김희원</li> <li>경기서부명운공국 최남권</li> <li>서울경서명운공국 강진국</li> <li>서울남부명운공국 문길용 김영근</li> <li>인천명운공국 김영주 김상수</li> <li>인천서부명운공국 강태영</li> <li>서부명간실국 문경호</li> <li>서부분부 이병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안동 이찬원</li> <li>의 성 권해만</li> <li>영 주 김창진</li> <li>봉 화 심재은</li> <li>문 경 김성욱</li> <li>예 천 윤원상</li> <li>대구명간실국 강진구</li> <li>대구분부 박현중</li> <li>대구NSC 정주현 이사회 박추서</li> <li>동대구NSC 석경우</li> <li>포항NSC 주경호</li> <li>안동NSC 이주일</li> <li>안동NSC구미 박병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남분부 안성희</li> <li>충남강남실국 이상철</li> <li>대전명 최장택 사정원 고재필</li> <li>충남영양공구 이호연 이근주</li> </ul>	
<b>충남지방법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남안산지부 유광림</li> <li>서희지부 신갑진</li> <li>시흥지부 유재대</li> <li>강서지부 김희태</li> <li>가양지부 김일오</li> <li>김포공황지부 이상오</li> <li>목동지부 김혁중</li> <li>영동포지부 임형식</li> <li>개봉지부 김희원</li> <li>경기서부명운공국 최남권</li> <li>서울경서명운공국 강진국</li> <li>서울남부명운공국 문길용 김영근</li> <li>인천명운공국 김영주 김상수</li> <li>인천서부명운공국 강태영</li> <li>서부명간실국 문경호</li> <li>서부분부 이병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안동 이찬원</li> <li>의 성 권해만</li> <li>영 주 김창진</li> <li>봉 화 심재은</li> <li>문 경 김성욱</li> <li>예 천 윤원상</li> <li>대구명간실국 강진구</li> <li>대구분부 박현중</li> <li>대구NSC 정주현 이사회 박추서</li> <li>동대구NSC 석경우</li> <li>포항NSC 주경호</li> <li>안동NSC 이주일</li> <li>안동NSC구미 박병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남분부 안성희</li> <li>충남강남실국 이상철</li> <li>대전명 최장택 사정원 고재필</li> <li>충남영양공구 이호연 이근주</li> </ul>	
<b>충남지방법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남안산지부 유광림</li> <li>서희지부 신갑진</li> <li>시흥지부 유재대</li> <li>강서지부 김희태</li> <li>가양지부 김일오</li> <li>김포공황지부 이상오</li> <li>목동지부 김혁중</li> <li>영동포지부 임형식</li> <li>개봉지부 김희원</li> <li>경기서부명운공국 최남권</li> <li>서울경서명운공국 강진국</li> <li>서울남부명운공국 문길용 김영근</li> <li>인천명운공국 김영주 김상수</li> <li>인천서부명운공국 강태영</li> <li>서부명간실국 문경호</li> <li>서부분부 이병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안동 이찬원</li> <li>의 성 권해만</li> <li>영 주 김창진</li> <li>봉 화 심재은</li> <li>문 경 김성욱</li> <li>예 천 윤원상</li> <li>대구명간실국 강진구</li> <li>대구분부 박현중</li> <li>대구NSC 정주현 이사회 박추서</li> <li>동대구NSC 석경우</li> <li>포항NSC 주경호</li> <li>안동NSC 이주일</li> <li>안동NSC구미 박병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남분부 안성희</li> <li>충남강남실국 이상철</li> <li>대전명 최장택 사정원 고재필</li> <li>충남영양공구 이호연 이근주</li> </ul>	
<b>충남지방법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남안산지부 유광림</li> <li>서희지부 신갑진</li> <li>시흥지부 유재대</li> <li>강서지부 김희태</li> <li>가양지부 김일오</li> <li>김포공황지부 이상오</li> <li>목동지부 김혁중</li> <li>영동포지부 임형식</li> <li>개봉지부 김희원</li> <li>경기서부명운공국 최남권</li> <li>서울경서명운공국 강진국</li> <li>서울남부명운공국 문길용 김영근</li> <li>인천명운공국 김영주 김상수</li> <li>인천서부명운공국 강태영</li> <li>서부명간실국 문경호</li> <li>서부분부 이병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안동 이찬원</li> <li>의 성 권해만</li> <li>영 주 김창진</li> <li>봉 화 심재은</li> <li>문 경 김성욱</li> <li>예 천 윤원상</li> <li>대구명간실국 강진구</li> <li>대구분부 박현중</li> <li>대구NSC 정주현 이사회 박추서</li> <li>동대구NSC 석경우</li> <li>포항NSC 주경호</li> <li>안동NSC 이주일</li> <li>안동NSC구미 박병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남분부 안성희</li> <li>충남강남실국 이상철</li> <li>대전명 최장택 사정원 고재필</li> <li>충남영양공구 이호연 이근주</li> </ul>	
<b>충남지방법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남안산지부 유광림</li> <li>서희지부 신갑진</li> <li>시흥지부 유재대</li> <li>강서지부 김희태</li> <li>가양지부 김일오</li> <li>김포공황지부 이상오</li> <li>목동지부 김혁중</li> <li>영동포지부 임형식</li> <li>개봉지부 김희원</li> <li>경기서부명운공국 최남권</li> <li>서울경서명운공국 강진국</li></ul>			

# 365일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복지기금 지급내역

구분 및 대상			지급액	
경 조 금	축의금	결혼	사원 50만원 자녀 30만원	
		회갑	직계존속, 배우자 부모 30만원	
		출산	사원/배우자 20만원	
	조위금	사망	본인사망 (제26조 제2항에 의한 사망)	8,000만원
			배우자	200만원
		직계존비속/배우자부모	50만원	
재 난 구 호 금	주택파손 (자기)	완전파손	1,000만원	
		1/2 이상 파손	700만원	
		1/3 이상 파손	350만원	
	주택파손 (전세)	완전 파손	200만원	
		1/2 이상 파손	150만원	
		1/3 이상 파손	100만원	
	주택침수 (본인가주)	완전 침수	300만원	
부분 침수		200만원		
주택 자금 대부	주택마련자금 용자		5,000만원한도	
	주택임차자금 용자		3,000만원한도	

## 복지기금 청구방법

구분	처리내용
복지기금 지급 대상자	인사관리에서 가족사항에 등재된 가족에 한함 ★신규등록 대상자: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가족사항 신규 등록	Insa.kt.co.kr접속⇒인사⇒신청/변경⇒가족사항⇒추가입력 후 저장
입력방법	Insa.kt.co.kr접속⇒복지⇒복지기금 청구⇒가족사항 중에서 해당자 선택 ⇒기금항목에서 조회한 후 해당사항 클릭⇒자료확인 구분(청원유가, 주민등록번호, 증빙첨부)중 선택⇒등록
신청기한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

## 비급여 여성 복리후생비 지원기준

### 개인연금

- 지급대상 \_ 직원(임원, 계약직 제외)
- 지원기준 \_ 2001.9.30이전까지 가입하여 계속 불입중인 자월 불입금 총액의 50%(월 5만원 한도내) 99.5.22이후 입사자 제외
- 지원금액 \_ 97년부터 10년간 매월 10만원(본인5, 회사5만원)

### 중고생자녀 학자금

- 지원대상 \_ 중고생 취학자녀를 가진 직원(임원, 계약직 제외)
- 지원금액 \_ 입학 및 등록에 필수적인 비용 전액 무상지원(고등학교는 80만원 이하)

### 하계휴가보조비

- 지급일 \_ 매년 7월 15일경
- 지급단가 \_ 직원 1인당 30만원(월드패스카드)
- 지원대상 및 기준 \_ 직원(경영직이상 제외)

### 형사피의보상

- 지원대상 \_ 임직원이 업무수행중 교통사고로 형사피의자가 된 경우
- 지원금액 \_ 무제한(구속기간 중 임금, 벌금, 변호사 수입료)
- 단, 변호사 수입료는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 보건관리자 위탁수수료

- 보건관리자 미선임 기관 1인당 월 2,810원
- 근거 \_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 안전관리자 위탁

- 안전관리자 미선임 기관 1인당 월 3,750원
- 근거 \_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 유해작업장건강관리비

- 지원대상 \_ 선로, 전압, 전력, 전송, 전용, SLMOS, DELMONS, LCR, 시험실, 국제수동교환 등 '노사합의'에 의하여 사업부서(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시달한 집행지침 참고
- 지원단가 \_ 1주당 6천원(단, 전담직은 12천원)

### VDT예방활동비

- 지원대상 \_ 국제교환업무(국제전화국), 115전보 및 무선통신(전신국, 기 업고객상품상담 접수 RSB석(※노사합의 사항 참고))
- 지급기준 \_ 기관당 월 30만원, 1인당 월 5천원

### 작업환경측정수수료

- 측정대상 \_ 유해작업장(맨홀/축전지실 등) 측정수수료
- 측정료 \_ 측정기관과 수수료 별도협의

## 대학생자녀 장학금

구분	내역
지 급 대 상	1. 지급 기준일 현재 재직중인 사원 - 현재 대학생 취학 자녀를 둔 사원 -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대부분은 사원으로 2003. 3월 이후 학자금 원금 상환일이 도래하는 사원 - 사원당 지급자녀의 수는 2명 이내 2. 무급휴직자 제외
수 혜 대 상	1. 사원의 호적에 등재된 자녀 -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과정(전문대 포함)의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녀 - 관련법에 의거 교육인적자원부 인가 받은 학위인정대학(기능대학, 사이버대학 등 포함) - 국외 대학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 단 어학연수 또는 이수 등 과정은 제외
장학금 범위	1.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기성회비) 2. 학교운영지원비 등 등록에 필수적인 비용과 총학생회비 3. 기타 학교별, 학년별 자율적 경비 제외
지 급 기 준	1. 국내 대학 취학자녀 장학금은 실제 납입액의 75%이며, 국외대학은 국내 사립학교 유사학과(연세대 기준) 학자금의 75% 2. 대학 취학자녀 1인당 최대 8학기 이내(동일학년, 학기 지급 불가)
신 청 절 차	1. 취학자녀 등록(http://insa.kt.co.kr, 복지 - 학자금) 2. 장학금 지급신청서 및 학자금 납부영수증 원본 제출 3. 신청기한: 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단, 수시합격자는 입학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 급 방 법	1. 보수지급 익일에 지급 2. 급여계좌

## 주택자금 대부신청

구분	미련자금	임차자금
구 비 서 류	1. 주민등록등본(구주소가 나오도록 현재 거주지에서 발급) 2.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무주택 증명용) 3. 인사기록카드 사본 4. 주택자금 차용약정서 및 서약서 5. 계약서 사본(매매, 분양, 임차계약서) 6. 채권확보 서류 · 연대보증인일 경우 · 1년이상 재직 직원으로 1회 가능 · 보증보험증권 (3,000만원초과 금액 의무제출) 7. 본인의 은행 계좌번호 8. 매품: 등기부등본 1통 9. 분양 등기부등본 또는 미련자금 사용 영수증 1부	1. 주민등록등본(구주소가 나오도록 현재 거주지에서 발급) 2.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무주택 증명용) 3. 인사기록카드 사본 4. 주택자금 차용약정서 및 서약서 5. 전세금 증액: 신·구 계약서 사본 6. 채권 확보 서류 · 연대보증인일 경우: · 1년 이상 재직 직원으로 1회 가능 · 보증보험증권 7. 본인의 은행계좌번호 8. 신규임차 전가계약 이전한 주민등록등본 1통 9. 전세금: 대부금 사용 영수증 1부
대부금	5,000만원	3,000만원
자 격 요 건	1. 3년 이상 근무 2. 10년 상환 (1년거치 후 월급, 이자 120개월 - 거치회망자는 신청자 선택가능) 3.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한 기간은 무주택기간으로 인정) 4. 세대주 항목 삭제	
신 청	매월 출수 달 10일까지	이자율 연 3.8%

## 결혼기념일, 장기근속자

구분	결혼기념일	장기근속자
지급 내역	1. 결혼기념일 10년, 20년, 30년 2. 위로출장 처리 · 교육처리 · 수련관 생활입소(2박3일) · 본인가족 5인 이내 여비지급 · 본인 및 배우자 여비지급	1. 장기근속 20년, 30년, 40년 근속 2. 위로출장 처리 · 수련관 생활입소(2박3일) · 본인가족 5인 이내 여비지급 3. 보로금 지급 · 20년 - 70만원 · 30년 - 100만원 · 40년 - 150만원 4. 공로패 수여

## 각종 기념일 및 기념품비

날 짜	기 념 일	기념품비	지급일
1월 6일	노동조합 창립일	50,000원	※ 매년초 복지카드로 일시지급
5월 1일	근로자의 날	50,000원	
12월 10일	창사기념일	50,000원	
본인생일	생 일	50,000원 (추가지원: 다과 및 음료제공)	

## 의료비지원금 청구

구분	내역
대상	본인, 배우자(국민건강보험에 등재된 배우자), 20세 이하 자녀
구비서류	1. 병원에서 발급된 진단서리 영수증 2. 병원에서 발급한 처방전으로 구입한 약값 전산처리 영수증 3. 한도액 500만원(매월초부터 익월말까지 발생한 질병으로 수혜자 2개월 4만원 이상)
신청방법	1. 인사시스템 본인 입력(개인별 지급청구서 및 진료영수증 제출) 2. 지급일 : 매월 25일

## 청원휴가 대상일수

구분	대상	일수	비고		
결 혼	본인	7			
	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선반으로만 이동 가능한 도서지역 2일	
회갑 칠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선택 1		
사망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승중상	6		
	자녀	조부모(여직원의 시부모 포함)	5		
탈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숙부모	3		
	처조부모	외조부모	배우자의 백숙부모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1
출산	배우자(처)	본인의 고모, 고모부, 이모, 이모부, 외숙부모			
	여직원 출산전후(임신 8개월 이후 유산)		90	휴일포함	
태아검진 휴가	임신 4개월 이후 유산		45		
	임신 3개월 이후 유산		3		
			1월1일		
재해	재· 화재 등 중대 재해	3			

### 춘추계 체육행사비

- 지원대상 \_ 임직원 및 계약직
- 지급단가 \_ 1인당 연간 4만원(춘, 추계 각 2만원)

### 건전모임지원

- 지원대상 \_ 임직원 및 계약직
- 지원금액 \_ 1인당 연간 2만원(상반기, 하반기 각 1만원)

### 의약품비

- 지원대상 \_ 임직원 및 계약직
- 지원금액 \_ 1인당 연간 12,000원(상반기, 하반기 각 6천원)
- 지원품목 \_ 비상구급약(해열진통제, 소독약, 붕대, 소화제 등)

### 직원애사화환비

- 지원대상 \_ 임직원, 배우자, 임직원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시
- 지원단가 \_ 1인당 15만원

### 복지시설운영비

- 구내식당 \_ 월 50만원 범위내 - 지원대상 \_ 건물상주인원이 100인 미만인 구내식당 운영기관
- 의무실 \_ 월 3만원
- 이발소 \_ 월 5만원
- 예식장 \_ 월 10만원
- 테니스장 \_ 월 10만원(1면당)

### 장제용품(그릇셋트) 지원

- 지원대상 \_ 임직원/배우자 사망시, 임직원 직계존비속 사망시, 배우자의 부모 사망시
- 지원단가 \_ 400인용까지

### 야식비 지원

- 야식비 \_ 야간근무자에 대하여 1월 1,400원
- 식식비 \_ 근무시간외 2시간 이상 초과 근무자에 대하여 1월 6,000원

### 국가유공자위로비

- 대상 \_ 국가유공 직원
- 지원기준 \_ 1인당 5만원(매년 6월)

### 수련관 생활연수 인소여비

- 지급대상 \_ 결혼기념일(10/20/30년), 장기근속(20/30/40년) 등
- 지원기준 \_ 복지업무 운영 매뉴얼(수련관운영) 참조

### 운동용품 구입비

- 구입기준 \_ 임직원 1인당 3,000원

### 장애인의 날 위로

- 대상 \_ 장애인
- 지급기준 \_ 1인당 10만원
- 지원방법 \_ 장애인의날(4.20) 다과행사